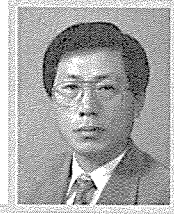


중소기업 정보화, 성공의 길은?



위즈정보기술(주)/대표이사 장경태

정 보화는 모든 비즈니스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이 되는 무기이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글로벌리제이션, 기술혁명, 지식기반사회로 대변되는 디지털시대에 정보의 힘은 대기업, 중소기업, 온라인기업, 오프라인기업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필수가 되었다. 정보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정보화라는 프로그램은 무척 환영할만하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풀뿌리로 매우 중대한 경제적 비중을 점유하고 있지만, 정보화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몰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거나,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층의 정보화 마인드가 관건

정부의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은 경영에 정보화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방식을 혁신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는 2003년까지 3만개의 중소기업에 기초정보 S/W 및 전

사적 자원관리(ERP) 구축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예산만도 약 164억원이 투입된다. 중기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중소기업은 약 280만개로써 이중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은 24.9%, ERP를 구축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10.1%, 정보화를 추진하는 전담부서의 인력은 1.2명으로 매우 열악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기청의 정보화추진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들의 정보화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이 목적대로 성공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경영층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회사의 관리수준과 여건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영층이 정보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정보화를 통해 기업을 혁신하고 선진경영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보화의 목적, 정보화 전략의 수립, 정보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의 주요한 의사 결정은 경영층 주도 하에 중간관리자층의 적극적인 참여로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대개의 중소기업은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말단 기술사원에게 일임하거나 외주에만 의지하려 경향이 있다. 대기업처럼 정보화를 담당하는 CIO가 없는 상황에서 정보화는 그저 기술의 문제로 취급된다. 중소기업의 전산담당 직원의 경우, 기술적 이해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회사 전체를 바라보는 식견과 이해는 부족하다. 그래서 회사의 정보화에 대한 기획과 추진을 맡기기엔 불가

능하다. 이것이 바로 많은 비용을 들이고도 실패하는 큰 이유이다.

시스템 개발이나 운영 등 기술적 사항은 기술사원이나, 외부의 IT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다. 하지만 정보화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사원이 해결할 수 없다. 외부의 컨설턴트에게 맡기더라도 함께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결정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패키지 선택도 중요하다. 회사 실정에 맞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선택하여 큰 수정없이 구축, 적용해야만 정보화 본래의 목표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기업의 업무를 폭넓게 이해하고, 여러 사용자 부서를 대표하는 책임자들의 판단이 필요하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정보화를 추진하다보면 부서이기주의가 왕왕 발생한다. 이러할 때 부서간의 업무를 조정해주는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정보화 추진을 전담하는 책임임원(CIO)의 역할이 대두되는 것이다.

기업의 정보화는 결코 간단치 않다. 기존의 전통적인 업무절차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정보를 공유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션, 협동작업이 훨씬 편리해지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과정이 그리 쉽겠는가?

결론적으로 정보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모든 사용자 다시말해 최고경영자로부터 사원에 이르기까지의 참여가 중요하다. 모두가 정보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신시스템의 설계사양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회사의 경영목표와 전략에 일치하는 정보화를 기획하고, 전사적인 입장에서 여러 부서, 사람의 의견을 수렴, 조정, 추진하는 정보화담당 임원(CIO) 또는 부서장의 역할은 성공의 열쇠가 된다.